| 현불 논단 |

땅, 집 그리고 붓다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터전 아닌 재화축적 수단이 된
부동산 문제로 한국사회 '들썩'
보궐선거도 '부동산' 최대 이슈

붓다는 돈을 홀대하지 않았다
바른직업구하기 · 재물활용 등
올바른 재화 축적 방법을 전해

돈의 윤리 통한 하화중생 강조
붓다 경제학, 현사회의 해독제

'땅' 과 '집' 으로 온 나라가 어지럽다. 땅과 집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땅 투기에 대한 개탄과 분노의 목소리가 이 땅을 휩쓸고 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서도 정책적인 논쟁보다는 땅과 집에 대한 상대방의 흠집 내기가 중심이 되고 말았다. 이 모든 원인은 땅과 집이 '살기' 위한 터전이 아니라 '돈 벌기' 의 제일 강한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기실 땅과 집은 한국 사회에서 제일 큰 재화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를 어쩌랴.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 이라고 회자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불화는 땅과 집의 재화 기능이 불공정하게 왜곡되었다는 데 있다.

붓다는 돈을 홀대하지 않았다. 재가자에 대해서는 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경전을 보면 붓다는 많은 장자와 왕들을 만난다. 이들은 중요한 포교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붓다의 후원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불교는 상인의 종교, 도시의 종교로 표현되기도 한다. 〈잡아함 48권 기능경〉에 나타난 붓다의 경제관을 살펴보자. 기원정사에 계실 때 한 젊은이가 찾아와 돈을 벌고 재산을 관리하는 법을 물었다.

"우선 일을 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재물을 모으면 그것을 넷으로 쪼개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즉 한 무더기는 먹고 사는 데 쓰고, 두 무더기는 생업을 위해 이윤을 얻는 데 쓰고, 나머지 한 무더기는 곤궁할 때를 대비해 저축해 두는 것이 좋다. 생업을 위해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일에는 여섯 가지 직업이 있다. 〈중략〉 이러한 직업에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한다면 모든 물이 바다로 모이듯, 꿀벌이 꿀을 모으듯 재산이 불어날 것이다. 재산이 불어나면 자연히 사람들도 많이 모여들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사람들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성공한 사람의 그늘에 사람이 모이면 친형제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에게 이익을 골고루 나누어주면 목숨이 다한 뒤에는 천상에 태어나 즐거움을 누리게 되리라."

위 경전 내용을 보면서 필자는 붓다의 세간사에 대한 치밀한 관심사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불교 경제학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태국의 프라유드 파토유 스님은 저서 〈붓다의 경제코칭〉을 통해 붓다의 경제관을 잘 제시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부자가 되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한다. 불교 경전 어디에서도 가난을 칭찬하거나 장려하지 않았다. 중요한 점은 부 자체가 칭찬이나 비난을 받을 일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행동으로 부를 이루고 어떻게 활용했는가를 중요시했다. 문제는 부에 이르는 올바른 길을 알지 못할 때 생긴다. 붓다는 이미 2500년 전에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 윤리와 비슷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불교 경제학에서 말하는 '중도' 는 자기 자신과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이리라. 세상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향상시키며, 조화롭게 성장하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붓다의 경제관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윤리의 핵심이라고 보는 내용이 이미 다 제시되어 있으니 참으로 신기하다.

오늘날 온 지구촌이 물신주의에 빠져 돈에 중독되어 가고 있다. 돈이 가지고 있는 방편은 사라지고 돈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것 같다. 붓다는 돈의 윤리를 통해 하화중생과 자비 수행의 길을 제시한다. 이러한 붓다의 경제관은 이 사회에 큰 해독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 해독제를 어떻게 처방하여 쓸 것인가? 불교의 사회적 역할이 점점 크게 다가온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생각이 자신을 만든다

산골짜기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계곡을 따라 유연하게 흘러내리던 물이 흐르던 그 모습대로 얼음이 되었어요. 저 계곡의 얼음은 봄이 되어야 몸을 풀고 다시 흐를 것입니다. 견고한 얼음에서 유연한 물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물처럼 유연하게 흘러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자신을 형성하고 삶을 결정짓습니다. 삶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임 속에서 결정을 내리고, 결정된 생각은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 생각들이 지속되고 다져지고 뭉쳐서 드러나는 것이 현재 자신의 모습입니다. 생각의 파편들이 쌓이고 모인 것이 자기의 역사이지요. 그 생각 속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깃들어 있다면 그 사람은 날마다 삶을 찬미하겠지요.

우리의 삶은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잘 살고 못살고, 잘되고 못되는 것이 이 생각 하나에 또는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어느 절대자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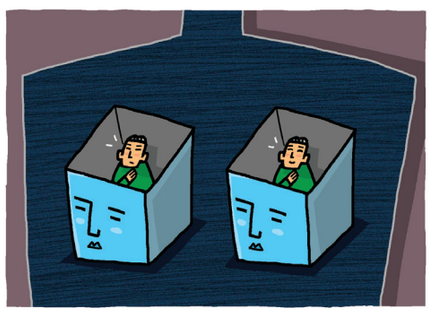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각자의 한 생각, 찰라의 한 생각이 지혜롭다면 행복이 오고, 한 생각이 어리석으면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은 나만이 지니고 있는 자가 보장(寶藏)이며 신통 자재한 무한한 능력을 지닌 것입니다. 마치 형제를 따르는 그림자처럼 이렇게 이 세계는 내 마음속에서 간절하게 그리는 것만이 현상계에서 그 모습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행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마음속에서 불행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불행이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모른 채 부모를 원망하고, 사회를 탓합니다. 어떤 인생도 일생 내내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면 불행에서 벗어나려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불행하다' 는 생각에만 갇혀 있다면 누에가 자기 집을 짓지만 결국 그 안에 갇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보물을 품고 있는 창고와 같은데 왜 불행을 불러오는 생각으로 가득 찬 허접한 창고로 만들어버립니까? 실로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우리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마음의 결정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에 복을 불러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새롭게 인생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 설계 속에는 반드시 서원을 지녀야 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속에 원을 세워야 합니다. 원을 세우는 것은 자신의 몫이자 자신의 고유한 의무입니다.

자신의 미래 모습이란 바로 지금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자들은 한 생각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현대인에 맞는 불교교재 '기대'

조계종 교육원이 새로운 불교개론 발간에 본격 착수했다고 한다. 조계종 교육원은 3월 30일 교육교재 편찬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새로운 교육교재 편찬은 승가교육기관 필수 교재인 '불교개론' 을 발간하는 것이다. 이는 올해 교육원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주요사업으로 소개됐다. 당시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기존 개론서들은 옛날 언어로 쓰여져, 지금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현대적 언어와 사고로 정립된 불교개론서를 발간할 계획을 밝혔다.

편찬위원회가 논의한 편집 방향을 살펴보면 기대감이 든다. 불교의 핵심인 중도 · 연기적 가치관에 입각해 불교를 조망하고 선의 현대적 가치, 공동체, 생명사상, 사회실천 등을 아우른다는 계획이다. 각 장마다 주요 개념에 대해 알기 쉬운 경전 자료나 조사어록, 현대 인문학 · 자연과학 등을 예시 자료로 들어, 학인들의 논의 · 성찰을 유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분명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승가의 변화도 요구받고 있다는 이야기다. 인천의 스승이 될 스님은 이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인에게 맞게, 시대의 언어로 가르쳐야 한다. 이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부단한 노력과 수행, 공부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시대 맞는 승가교육 교재는 필요하다. 교육원이 시대 언어에 맞는 새로운 '불교개론' 을 발간하겠다는 것은 환영할만 하다.

새로운 '불교개론' 은 오는 12월 발간을 목표하고 있다고 한다. 계획한 대로 시대에 맞는 현대적 승가상 정립하고 일반 불자들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새로운 불교개론서가 세상에 나오길 기대한다.

방역 사각지대에 큰 관심을

코로나 팬더믹이 다시 몰려오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 속도가 높아지고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심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의료지원이나 감염예방 등의 코로나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은 80만 가구에 달한다. 급격히 늘어난 빈곤층으로 사각지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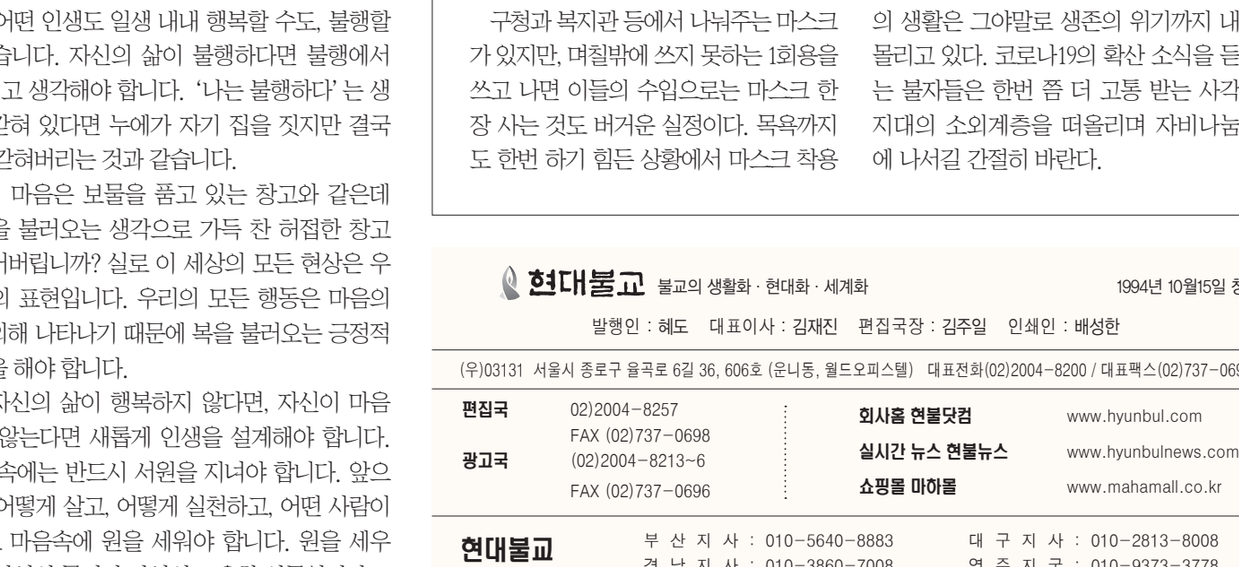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최근 영등포 쪽방촌에서 진행한 마스크 나눔은 이러한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마스크 전달을 받은 대부분의 쪽방촌 주민들이 마스크가 없거나 면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구청과 복지관 등에서 나눠주는 마스크가 있지만, 며칠밖에 쓰지 못하는 1회용을 쓰고 나면 이들의 수입으로는 마스크 한 장 사는 것도 버거운 실정이다. 목욕까지도 한번 하기 힘든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이나 손소독 등은 언감생심일 것이다.

부처님은 사위성 좁은 골목길에서 분뇨를 수거하던 불가촉천민 니다이를 만났다. 니다이는 부처님에게 길을 비켜드리려다 넘어져 그만 똥물이 부처님에게 튀고 말았다. 부처님은 니다이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함께 목욕을 하자고 하시며 부처님 가르침이 맑은 물과 같으니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는다고 하였다. 부처님 가르침인 자비 나눔의 대상에는 신분의 고하가 없다.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보면 빈곤의 사각지대가 수도 없이 많다. 코로나19로 빈곤이 확대되고, 감염의 공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각지대에 처한 이들의 생활은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 소식을 듣는 불자들은 한번 쯤 더 고통 받는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을 떠올리며 자비나눔에 나서길 간절히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www.btn.co.kr
함께 행복해요
세상을 바꾸는 동행同幸
BTN 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BTN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Btv 30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